

1991年 經濟展望과 政策運用方向

具 本 湖

〈韓國開發研究院 院長〉

目 次

- | | |
|---------------------------------------------------------------------------------------------------------------------------------------------|----------------------------------------------------------------------------------------------------------------------------------------------------------------|
| 1. 對外經濟與件展望
가. 油價展望과 油價上昇의 效果
나. 先進國의 經濟成長 및 主要
換率 展望
2. 1991年 經濟與件과 展望
가. '91年의 經濟與件
나. '91年의 經濟展望
3. 政策運用方向
가. 概要 | 나. 課題別 接近方向
1) 安定的 賃金上昇의 追求와
産業平和의 定着
2) 通貨의 安定的 供給과 資
金흐름의 改善
3) 財政의 成長潛在力培養機
能 強化
4) 製造業의 國際競爭力 提高
5) 市場開放의 能動的 推進
6) 社會的 一體感의 造成 |
|---------------------------------------------------------------------------------------------------------------------------------------------|----------------------------------------------------------------------------------------------------------------------------------------------------------------|

다음 글은 韓國 能率協會가 1990. 12. 19에 開催한 最高經營者朝餐會에서 行한 主題發表內容을 轉載한 것이다.
(編輯者 註)

1. 對外經濟與件 展望

- 가. 油價展望과 油價上昇의 效果
- 1) 油價展望
- 國際原油價는 今年 上半期에 배럴당 16달러내외의 수준에서 머물렀으나 8월초 中東事態의 勃突이후 急騰勢로 反轉하여 최근 배럴당 30달러를 上廻하고 있음.

— 油價需給狀況과 中東事態의 여러가지 전개가능성을 고려할때 國內導入原油價는 今年 4/4 分期中에는 배럴당 30달러를 上廻하는 수준에서 매우 不安定하게 움직일 것이지만 내년에는 22~25달러의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라크의 사우디공격 등으로 인하여 中東의 不安이 심화되는 경우 國際油價는 배럴당 40달러수준까지도 이를 수 있으나 이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中東의 대치상태가 해소되는 경우 이라크 및 쿠웨이트의 原油供給으로 油價는 배럴당 22달러선 혹은 그 이하로 하락할 것임.

— 海外의 主要像豫機關에 의하면 中長期

표 1. 油價推移

(달러/배럴)

油種	1990					
	1-6月	7月末	8月末	9月末	10月末	11月23日
Dubai	15.3	17.2	24.4	35.3	29.70	27.70
Brent	17.9	19.5	28.2	40.8	34.25	31.00

資料: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各戶.

的으로 볼 때 배럴당 油價는 90년대 中盤에 25달러를, 90년대末에는 30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2) 油價上昇의 效果

- 中東사태의 발발을 계기로 한 國際油價上昇 및 이에 따른 海外의 經濟成長鈍化는 國內의 物價不安과 貿易收支惡化를 초래하고 나아가서 經濟成長을 둔화시킬 것이 우려되고 있음.

- 計量分析에 의할 때 油價上昇의 충격은 대략 4년에 걸쳐서 나타나고 그 충격은 第1次年度에 가장 크게 나타남.

· 國際油價가 50% 급등하는 경우 第1次年度에 經濟成長率은 1.2%포인트 下落하고 GNP 디플레이터 基準으로 物價上昇率은 2.5%포인트 上昇함.

· 輸出入을 각기 650億달러로 想定해보면 油價가 50% 上昇하는 경우 貿易收支는 第1次年度에 43.5億달러의 赤字를 보는 것으로

나타남. <표 2>에 의하면 油價上昇으로 인한 貿易收支 惡化效果는 第3次年度부터 대체로 극복되는데, 이것은 油價上昇으로 인한 經濟成長의 둔화로 輸入이 減少하기 때문임.

나. 先進國의 經濟成長 및 主要換率展望

- 油價上昇 및 이에 따른 金融緊縮으로 인하여 美國은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상당한 景氣沈滯를 보일 것이며 日本도 내년과 후년에 經濟成長의 둔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美달러貨는 美國의 經濟鈍化 및 油價上昇에 따른 日本 및 獨逸의 金融緊縮으로 인하여 내년 말까지 切下趨勢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WEFA展望에 의하면 엔貨 및 마르크貨는 1991년에 美달러貨에 대하여 각기 約 4% 및 3%의 切上을 볼 것임.

표 2. 國際油價의 50% 上昇이 國內經濟에 미치는 영향

(%)

年度	經濟成長率	輸出額增加率	輸入額增加率	GNP 디플레이터上昇率
1	-1.2	-4.2	+2.5	2.5
2	-0.7	-3.0	-0.0	1.9
3	-0.4	-1.2	-1.4	1.5
4	-0.1	-0.3	-1.7	1.2
5	+0.1	+0.2	-0.2	1.0

표 3. 主要先進國의 經濟成長率¹⁾

(%)

	1990	1991	1992
美國	1.1	1.0	2.2
日本	5.1	4.0	3.4
獨逸	3.9 ²⁾	3.0 ³⁾	3.3 ³⁾

註: 1) GDP기준, 2) 西獨, 3) 統獨.
資料: WEFA, 1990. 11

표 4. 主要換率展望¹⁾

	1990	1991
엔貨/美달러貨	130.0	125.0
마르크貨/美달러貨	1.510	1.460
파운드貨/美달러貨	0.514	0.502

註: 1) 年末基準.
資料: WEFA, Foreign Exchange Rate Outlook, 1990. 11

2. 1991년의 經濟與件과 展望

가. 91년의 經濟與件

1) 페르샤灣事態의 波及效果

— 油價急騰은 貿易收支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輸入인플레이」 현상을 가져올 것임.

· 油價急騰과 달러貨의 切下로 인하여 輸入單價의 현저한 상승이 예상됨.

표 5. 輸入單價 展望

(%)

	1990	1991
輸入單價上昇率 ¹⁾	-0.8	4.0

註: 1) 美달러貨表示 物價基準

· 經常收支가 악화됨에 따라 元貨의 對달러貨價值가 下落하고 그 결과 輸入物價의 상승이 확대됨.

표 6. 元貨의 平價切下展望

(%)

	1990	1991
對달러貨名目換率	6.0	5.0
名目實效換率	13.7	7.0

註: 前年對比 增加率.

· 예상되고 있는 換率變動은 輸入인플레이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輸出回復을 촉진하여 줄 것으로 기대됨.

2) 建設投資의 展望

— 建設投資活動은 91년에도 鈍化勢를 지속하여 7%내외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住宅建設〉

· 住宅建設은 90년중에 建設投資의 活況을 주도하였던 바 供給實績이 年初의 예상수준인 45만호를 훨씬 넘어 65만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住宅建設景氣는 90년을 정점으로 하여 91년이후에는 下降局面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30여만호에 달하는 首都圈 5個 新都市의 住宅建設活動은 時着效果로 인하여 91~92年中에도 계속될 것이므로 住宅建設投資는 前年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商業用 建設〉

· 대형빌딩, 여가시설 등의 商業用建物建築에 대해서는 과열된 建設景氣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90年 2/4분기이후 新規許可가 억제되고 있는바 이같은 규제가 91년에도 지속되는 경우 商業用建設의 增加率은 10%수준을 下廻할 전망이다.

〈其他建設〉

· 91年 財政事業의 일환으로 政府가 대규모의 社會間接資本投資를 계획하고 있어 其他建設은 91년중 15% 내외의 높은 증가세

를 보일 전망이다.

〈綜合展望〉

· 商業用建設規制가 유지되는 경우 建設投資는 전반적으로 7%정도의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 設備投資의 增加는 둔화되지만 生産自動化를 비롯하여 生産性向上을 위한 設備高度化 投資는 증가할 것임.

3) 賃金展望

－ 87~88년간 과도한 賃金引上으로 경쟁국과 대비하여 勞賃單價가 크게 상승하였으며 이는 輸出競爭力의 低下, 物價不安의 要因이 되고 있음.

· 88~89年中 우리나라 製造業의 名目賃金上昇率은 同期間中 臺灣의 1.8배, 日本의 6.6배에 달하였음.

· 그결과 88~89年中 우리나라의 달러表示 勞賃單價上昇率은 臺灣의 1.7배에 달하였음.

· 우리나라의 競爭國에 비하여 약2배에 이르는 勞賃單價上昇은 89년이후 우리나라 輸出競爭力喪失의 主要原因이 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勞賃單價上昇率의 격차를 줄이지 못하는 한 향후 輸出回復을 기대하기 어려움.

－ 내년의 賃金展望은 매우 불투명한 것이 사실임.

· 금년도의 높은 物價上昇으로 인하여 勤勞者는 높은 賃金引上을 요구할 것임.

· 그러나 87년이후 지속되어온 매우 높은 賃金上昇과 이로 인한 國際競爭力喪失 및 油價急騰, 그리고 내년에 예상되는 通貨緊縮 등에 따른 支拂能力의 減少로 인하여 企業側에서는 「한자리數」의 賃金引上을 제시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지난 수년간의 높은 賃金上昇率, 최근의 勞使關係安定化趨勢 및 油價上昇 등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내년도의 賃金은 금년 2/4분기이후의 安定化趨勢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91년도 賃金展望은 매우 불투명한 가운데 賃金の 安定화 요인보다 불안정화 요인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결과 勞使 및 政府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한 내년도 賃金上昇率은 10%를 상회할 전망이다.

〈賃金の 不安定化 要因〉

· 금년도 消費者物價上昇率이 거의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輸入인플레이의 영향으로 내년도에 이에 못지 않는 정도의 物價不安이 예상되고 있음.

· 완전고용에 상응하는 수준의 낮은 失業率로 인하여 勞動市場의 需要壓力이 적어도 내년초까지는 지속될 전망이다.

표 7. 主要國의 賃金引上 및 勞賃單價比較 (製造業)

(증가율, %)

		1986	1987	1988	1989
賃 金	韓 國	9.2	11.6	19.6	25.1
	臺 灣	10.1	9.9	10.9	14.6
	日 本	2.0	2.5	1.8	5.6
勞賃單價(\$)	韓 國	-0.4	16.3	25.4	36.2
	臺 灣	5.0	24.5	18.7	19.8
	日 本	42.7	10.0	8.5	-

〈貨金の安定化要因〉

· 금년도 引上妥結率의 하락으로 인한 貨金安定化趨勢가 적어도 내년 上半期까지는 지속될 전망이다.

· 1987~1989년의 기간에 實質貨金이 勞動生産性を 크게 앞질러 增加하여 온 것이 사실임.

· 91년도에는 油價引上 및 經濟成長鈍化로 인하여 使用者의 지불능력이 크게 減少될 것임.

4) 財政

－ 政府의 1991년도 暫定豫算案의 一般會計規模는 27.2兆원으로서 90년 本豫算對比로 19.8%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2次追更豫算對比로는 - 0.1%의 增加勢를 보이고 있음.

· 신설될 예정인 지방양여세 특별회계를 포함할 경우 91년 一般會計支出은 29.2兆원에 달하여 90년 2次追更豫算對比로 6.3%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

· 지방양여세 특별회계를 포함하는 91년 一般會計는 支出과 歲入의 규모가 일치하는 균형예산이 될 것으로 전망됨.

· 91年 豫算案의 내용을 보면 生産隘路타개를 위한 社會間接資本擴充 등을 위한 投資性支出과 農漁村開發 및 國民福祉事業 등을 위한 이전성지출이 90년本豫算對比로 각기 34%, 30%이상 증가하고 있음.

5) 通貨

－ 91年度의 通貨政策은 安定基調를 堅持하여야 할 것임.

· 내년에는 상당규모의 經常收支赤字가 예상되고 있어 通貨의 안정적 供給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民間信用의 확대가 가능할 것임.

나. 91年の 經濟展望

1) 經濟展望

〈표 8〉에 제시된 91년도 經濟展望에 의하면 91년에는 投資 및 消費의 대폭적인 둔화

가 예상되고 그 결과 經濟成長率은 6.9%내외의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 設備投資는 油價上昇에 따른 經濟與件惡化와 通貨緊縮의 영향으로 10%의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 輸出(實質)은 海外需要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元貨의 實效換率切下가 지속됨에 따라 금년보다는 약간의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消費는 民間消費를 중심으로 하여 投資의 鈍化와 通貨緊縮의 영향으로 7.5%의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임.

· 內需의 지속적인 둔화로 인하여 輸入(實質) 역시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 貿易收支는 輸入의 物量增加率이 輸出의 物量增加率을 상회하고 油價上昇으로 인하여 交易條件이 惡化됨에 따라 30億弗 규모의 赤字를 보일 것임. 이에 따라 經常收支는 33億弗규모의 赤字를 보일 전망이다.

－ 物價上昇率은 消費者物價基準으로 금년의 수준을 다소 상회하여 9.7%에 이를 것임.

· 物價上昇의 상당부분은 輸入單價의 上昇과 換率切下로 인한 「輸入인플레이」로서 이 점을 반영하여 내년에는 都賣物價上昇率이 消費者物價上昇率과 비슷한 수준에 이를 것임.

2) 91年 經濟展望의 特徵

－ 내년 우리經濟는 設備投資가 둔화되고 貿易赤字가 다시 확대되며 9%를 상회하는 物價上昇이 지속되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 바 이러한 현상은 페르샤만事態와 이에 따른 國際環境變化에 기인하는 것임.

· 中東事態 및 이에 따른 海外의 經濟成長鈍化는 設備投資를 위축시키고 輸出의 본격적인 回復을 지연시켜 成長鈍化를 유발함.

· 油價急騰 및 달러貨切下로 인한 輸入物價의 上昇과 國際收支惡化로 인한 元貨의 切下는 높은 物價上昇을 지속시킴.

표 8 1989~91年 經濟運營의 實績과 展望

	1989	1990	1991
實質 GNP成長(%)	6.7	9.0	6.9
總消費	9.5	9.6	7.5
固定投資	16.2	21.5	8.4
(設備投資)	12.3	16.1	10.0
(建設投資)	19.8	26.2	7.0
商品輸出	-5.2	4.0	5.3
商品輸入	14.3	15.5	5.6
經常收支(億달러)	51	-22	-33
貿易收支	46	-20	-30
輸出 ¹⁾	614	630	682
輸入 ¹⁾	(3.0)	(2.6)	(8.3)
貿易外 및 純移轉	5	-2	-3
物價上昇率(%) ²⁾			
GNP 디플레이터	4.6	7.5	8.0
都賣物價	1.5	4.3	9.8
消費者物價	5.7	8.8	9.7

註: 1) ()內에는 前年對比增加率
 2) 期間平均, 前年同期對比 上昇率

－ 내년 經濟展望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변수로는 貨金 및 通貨政策을 들 수 있음.

· 貨金の 安定化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物價不安과 貿易赤字가 확대될 것임.

· 通貨供給이 이완될 수록 經濟成長率은 높아질 것이지만 物價不安과 貿易赤字가 확대될 것임.

3. 政策運用方向

가. 概要

－ 향후 經濟運營의 목표는 物價不安의 최소화와 設備投資의 진작 및 輸出回復의 촉진에 두어야 할 것임.

·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貨金の 安定이 추구하고 이와 아울러 자금적 緊縮的 經濟運營이 추구되어야 할 것임.

· 設備投資 및 輸出回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금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우루과이라운드協商의 결과에 부응하여 농업, 서비스부문 등에 걸쳐 능동적 市場開放을 추구하고 나가야 할 것임.

－ 이에 따라 추구되어야 할 主要政策課題는 다음과 같음.

· 安定的 貨金上昇의 추구하고 산업평화의 정착

· 通貨의 安定的 供給과 資金흐름의 개선

- 財政의 成長潛在力培養機能 강화
- 製造業의 國際競爭力 提高
- 市場開放의 능동적 추진
- 社會의 一體感의 造成

나. 課題別 接近方案

1) 安定的 賃金上昇의 추구하고 産業平和의 정착

－ 지속적인면서도 안정적인 賃金上昇은 國際競爭力과 物價安定的의 원천임.

· 日本의 경우 賃金安定은 經濟의 構造的 特質의 하나로 정착하여 있음.

－ 賃金の 安定化를 위한 政策課題는 아래와 같이 정리됨.

· 經濟安定化 의지를 신빙성있게 제시하여 인플레이期待를 진정시키고 또한 최대한의 內需緊縮으로 이를 뒷받침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 勞動市場의 需要壓力을 완화하도록 함.

· 특히 農産物 등 생필품의 가격과 주택, 토지 등 不動産價格을 안정화시키도록 함.

· 또한 勞動生産性向上으로 勞動市場의 需要壓力을 완화함과 동시에 여성의 노동참여율 제고 등을 통하여 勞動供給을 확대시킴.

· 賃金安定의 결과 발생하는 이윤을 勤勞者에게 반환하는 업적급제도의 導入

賃金의 안정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賃金上昇率과 賃金引上妥結率間에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임.

－ 賃金의 안정은 勤勞者 혼자만의 희생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으로 賃金安定의 댓가로서 勤勞者의 實質所得이 長期的이고 지속적으로 향상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할

표 10. 賃金上昇率과 賃金引上妥結率

	賃金上昇率	賃金引上妥結率
1980	9.2	6.9
1986	8.2	6.4
1987 ¹⁾	10.1	17.2
1988	15.5	13.5
1989	21.1	19.8
1990	16.4 ²⁾	9.1 ³⁾

註: 1) 賃金引上妥結이 두번에 걸쳐 발생함.

2) 예측치.

3) 11월21일 현재.

것임.

－ 賃金의 안정과 勤勞者의 생활향상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勞使共同體를 지향하는 協力的 勞使關係가 定着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賃金의 안정을 추구함과 동시에 이러한 勞使關係構築을 위한 작업이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조속히 착수되어야 함.

－ 지난 3년간에 걸친 勞使兩側의 분규경험축적 및 사용자에 의한 勤勞者 要求의 상당한 수용과 公權力의 紛糾介入強化 등에 힘입어 勞使關係는 최근 급속히 안정되는 趨勢를 보이고 있으나 내년에는 이러한 趨勢가 다소 흔들릴 가능성이 없지 않음.

· 최근의 집행부교체와 전노협 등 재야노동단체의 체제정비 등으로 인하여 勞組의 강성화 가능성이 보이고 있음.

· 내년 및 후년에 걸친 地自制選舉 및 總選舉로 인하여 사회기강이 해이해지거나 公權力의 紛糾介入이 強化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표 9. 日本의 賃金上昇率

(%)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賃金	6.1	6.1	7.4	6.2	3.8	3.5	4.7	2.5	2.0	2.5	1.8	5.6

－ 勞使關係를 안정화시키고 나아가서 勞使協力の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 勞動市場의 법질서 정비·강화

· 企業의 勞務管理努力 강화, 기업단위 勞使對話채널의 개발 및 기업의 經營公開 및 경영쇄신 촉진

· 勤勞者 및 經營者들의 國家經濟現實에 대한 이해 및 國家經濟運營에의 기여를 촉진하기 위한 勞·使·政間의 대화기구 설치·운영

· 勤勞者福祉의 지속적 향상을 위한 勤勞者住宅 등에 대한 長期投資擴大

2) 通貨의 安定的 供給과 資金흐름의 改善

－ 通貨量은 總需要管理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貨金과 物價에 지속적으로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經濟安定化를 위해서는 通貨量의 安定的 供給이 중대한 요건임.

· 通貨政策은 時差를 두고 몇년에 걸쳐 누적적으로 物價에 영향을 미치므로, 通貨의 安定基調가 견지되는 경우 油價上昇에도 불구하고 2~3年內에 안정성장과 經常收支 黑字의 기초적 정착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임.

· 物價不安이 가속되는 경우 貿易赤字가 확대될 뿐 아니라 貨金安定化努力이 저해되어 景氣沈滯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 通貨政策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實物經濟推移이외의 通貨需要變化요인과 향후 추진될 金融産業改編과 관련된 金融資産構成變化를 감안하여 通貨供給目標 설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 經濟成長 및 目標인플레이션 이외에도 富의 증가 등에 따른 通貨의 유통속도 하락요인이 고려되어야 함.

· 일부 投資金融社들이 은행으로 전환함에 따라 이들의 受信高중 일부가 은행예금으로 이전되고 또한 기존은행에게도 新規受

信商品이 허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總通貨目標增加率의 설정이나 활용방법이 제고되어야 할 것임.

－ 90年の 通貨供給政策에 차질이 있었던 것은 通貨緊縮에 대한 구조적인 장애요인에 기인하고 있는 바 향후의 通貨緊縮을 효과적으로 추구하려면 이러한 장애요인을 완화하는 노력을 병행하여야 할 것임.

· 住宅資金, 農業資金, 추곡수매자금 등 각종 경직적 政策金融의 확대가 一般金融을 꺾박하고 있는 바 政策金融이 民間信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9年 1~9月 47%에서 90年 1~9月の 62%로 증가.

· 證市의 沈滯로 인하여 株式을 통한 企業資金調達이 작년수준의 1/4에 불과하였으며 그 결과 間接金融을 통한 企業資金調達壓力이 가중되었음.

－ 安定基調를 유지하면서도 成長潛在力의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生産的인 資金흐름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政策金融의 再整備와 金利自由化를 추구하여야 할 것임.

〈金利自由化〉

－ 與受信金利의 自由化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民間貯蓄을 증대시키고 金融의 2重구조를 완화하여 資金配分の 효율성 제고.

· 貸出金利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더라도 「꺾기」등 음성적인 金融慣行으로 인하여 企業의 실제적인 金融費用은 경감하기 어려움.

· 受信金利體系를 합리적으로 調整하고 金利規制로 인해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市中銀行에 自由金利商品을 확대허용토록 함.

〈政策金融의 整備〉

－ 政策性 資金의 공급경로

(1) 豫算에서 金融機關을 통해 집행되는 財政資金

· 농업자금, 수산업자금, 주택자금, 차관

자금, 중소기업자금, 유통개선자금 등이 지원되고 있으나 農業資金이 67% (90년 7월 현재 잔고 2兆 5,345億원)를 점함.

(2) 關係法에 의해 설립된 각종 基金

· 국민투자기금, 국민주택기금, 농어촌지역개발기금 등

(3) 金通委의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金融資金

· 주요 政策性 資金으로는 住宅資金, 農水畜資金, 貿易金融, 中小企業支援資金, 設備資金 등이 있음.

－ 政策金融의 확대는 通貨緊縮에 장애를 가져올 뿐 아니라 金融自律화와 金融産業의 國際競爭力強化를 저해하므로 政策金融別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재정비하는 한편 優待金利를 가급적 철폐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貿易金融은 資金의 생산적 흐름을 크게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農水畜資金등은 生産誘發효과가 크지 않아 物價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큼.

· 生産構造가 중층화되어 있는 輸出産業에 대한 資金支援은 生産의 여러단계에 걸

쳐 유동성공급이 확산되는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資金支援單位當 生産促進효과가 매우 큼.

· 貿易金融의 경우는 특히 實績에 따라 배정되기 때문에 목적외 사용으로 인한 누수현상을 극소화할 수 있음.

· 農水畜資金이나 추곡수매자금은 상당부분 消費性 支出로 연결되어 직접적인 物價上昇효과를 초래함.

－ 設備投資 및 中小企業支援과 관련된 資金支援은 産業構造調整을 유도하여 國際競爭力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갖지만 所得補助的인 지원은 오히려 構造調整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축소조정

· 構造調整資金은 실적에 따라 배정하고 優待金利를 배제함으로써 效率的 投資와 자구노력을 촉구

－ 주택 200만호 供給公約에 따른 供給擴大에 따라 住宅金融規模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바, 庶民을 위한 소형주택외는 이자율을 실세화하고 점진적으로 一般金融으로 대체

· 주택경기과열로 人件費가 상승하고 자

표 11. 民間信用內譯

(千億원, %)

	1989. 1~9	1990. 1~9
民間信用	106.5 (100.0)	132.6 (100.0)
政策性資金	50.0 (47.0)	45.9 (62.2)
住宅資金 및 住宅基金貸出	10.4 (9.7)	11.9 (9.0)
財政資金	8.0 (7.5)	5.3 (4.0)
農水畜資金	8.2 (7.7)	14.0 (10.5)
貿易金融	1.1 (1.0)	5.4 (4.1)
中小企業特別 資金	1.9 (1.8)	3.7 (2.8)
其他	20.4 (19.2)	36.7 (27.7)
給付金	9.6 (9.0)	6.9 (5.2)
有價證券	5.4 (5.1)	18.6 (14.0)
一般金融	41.4 (38.9)	30.1 (22.7)

資料：財務部「財政金融統計」

금이 生産部門에서 이탈하고 있음.

· 잔금결제시 自動貸出 받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어 일시에 주택금융제도를 廢止하기는 어려우므로 점진적 축소

- 농업경영비의 50% 지원을 위한 營農資金(營漁資金포함) 3兆원 공급의 公約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 3~4년동안 영농자금지원규모를 무차별적으로 급속히 증가시킴으로써 構造調整을 오히려 지연시키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擴大支援은 억제되어야 함.

· 영농자금은 연리 5%로 지원되고 있어

預金金利에도 미달하므로 實需要이외의 대출요구가 큼.

· 영농자금지원과는 별도로 農漁村支援을 위해 90년예산에 1兆 3,535億원, 그리고 92년예산에는 23.3%증액된 1兆 7,910億원이 계상되어 있음.

3) 財政의 成長潛在力 培養機能強化
〈社會間接資本의 擴充〉

- 80년대 후반에 와서는 財政의 通貨還收機能強調로 인한 緊縮運營으로 主要社會間

표 12. 住宅金融支援計劃

(단위 : 억원)

	89(실적)	90(계획)
영구임대주택건설 1)	6,530	7,432
국민주택기금 2)	11,739	23,000
민영주택자금	18,950	25,000
(주택은행) 3)	(15,535)	(17,400)
(국민은행) 4)	(1,485)	(4,500)
(보험회사) 5)	(1,363)	(2,000)
계	37,219	55,342

註 : 1) 일반회계와 財特資金

2) 1,200만원한도 18평이하 연 10.8% 20년 상환

3) 2,200만원한도 30.3평이하 연 11.5% 20년이내 상환

4) 2,000만원한도 30.3평이하 연 12.0% 10년이내 상환

5) 5,000만원한도 50평이하 연 14.0% 10년이내 상환

표 13. 營農資金支援計劃

(단위 : 億원)

	86	88	89	90
財政資金	1,000	3,000	4,200	5,300
韓銀借入金	2,629	3,482	4,946	7,550
農協資金	3,750	3,482	4,946	7,550
相互金融	400	1,760	3,020	3,600
作 計	7,779	11,724	17,112	24,000
經營費充足率(%)	21.0	27.8	37.7	48.5

接資本投資率이 오히려 감소하였는 바, 향후 社會間接資本의 확충을 위한 획기적 투자증대가 필요함.

· 89년의 경우 경부고속도로의 화물차 運行所要時間이 80년에 비해 2배로 증가하는 등, 전국도로의 4.8%에 해당하는 1,160km 구간도로의 교통체증이 심각함.

· 또한 항만시설 및 공업용수 부족, 철도 수송능력저하 등도 생산애로 및 유통비용증대를 초래하고 있음.

* 특히 89년의 港灣荷役能力은 80년대비 2.5배 증가하였으나 貨物量增加率 2.7배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더우기 仁川·釜山 등 주요항만의 積滯현상은 더욱 加重되고 있음.

－ 향후 主要社會間接資本의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 단순한 地域均衡開發을 위한 分散投資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生産隘路가 큰 부문 위주로 재조정하여 효율적 투자를 도모해야 할 것임.

〈産業構造調整 및 設備投資促進〉

－ 輸入開放에 대비한 農業競爭力強化 및 장기적인 農漁村所得增大를 위해 所得移轉의 農漁村支援方式을 지양하고 構造調整支援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 농어촌 負債輕減을 위한 金融支援이나 추곡수매등을 통한 곡가보조는 長期的으로 農業競爭力을 높이지 못하고 他生産部門의

자금경색을 초래하게 됨. 따라서 轉作·轉業農家の 지원 등 農業構造改善 및 農村의 工業化를 통한 農外所得增大를 도모하고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을 촉진하여야 할 것임.

－ 製造業分野의 투자촉진 및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임.

· 제조업 분야의 민간투자유인을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시행기간 연장, 첨단산업 및 자동화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기간 단축, 기술투자의 세액공제 등의 稅制支援施策을 차질없이 시행.

· 勞動의 질적개선을 위한 職業訓練의 擴大, 供給確保에 차질이 있는 技術人力의 양성 등을 위한 財政投資의 확대도 중요한 과제임.

〈財政運用의 效率化 摸索〉

－ 財政의 公共投資機能의 정상화로 인한 財政規模增大壓力을 制度改善 및 낭비요인의 축소를 통한 효율화로 가능한한 흡수하여 歲入內 歲出의 均衡豫算運用을 유지하여야 할 것임.

· 89, 90년도에 높은 財政規模擴大에도 불구하고 成長潛在力 培養으로 도모하지 못한 원인은 地方交付金, 防衛費 및 一般行政費 등 경직성경비의 비중이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인 바, 이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노력이 요구됨.

표 14. 經濟社會開發 豫算構成比

(단위 : %)

區 分	'85	'89	'90豫算
經濟社會開發豫算(億원)	28,985	53,333	56,404
社會保障 및 社會開發	29.7	36.7	41.9
農水産部門	15.6	21.8	19.2
輸送部門	24.1	21.7	20.1
國土資源保存 등	30.6	19.8	18.8

· 財政投融资 特別會計 및 基金의 二元的 融資機能의 단일화, 중복된 기금의 통·폐합, 기금관리에 대한 評價制度의 확충 등의 개선으로 公共資金運用의 效率化를 도모

· 東西間 緊張緩和에 부응하여 國防費縮小의 전망과 방법을 사전에 연구

－ 政府事業費의 우선순위 조정, 예산낭비적요인 제거를 위한 객관적 평가제도를 마련키 위해 미국의 경우처럼 議會豫算局 (Congressional Budget Office) 설치운용 검토

4) 製造業의 國際競爭力 提高

－ 輸出産業의 競爭力을 회복·유지하려면 品質의 改善·生産性의 向上·製品構成의 高度化가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製品技術의 확보·生産技術의 고도화·新製品開發을 위한 研究開發能力의 배양이 관건임.

· 中短期的으로는 生産自動化, 長期的으로는 新製品開發과 生産技術을 고도화할 수 있는 基礎技術과 製品技術의 확보·有機的 産學研 共同研究開發體制의 구축·효율적 연쇄형 生産分業組織의 형성이 관건임.

－ 日本企業과 비교하면 技術水準·自動化水準·管理能力面에서 상당한 격차가 있으므로 生産工程의 自動化, 勤勞內容의 質的向上, 經營成果의 公정한 배분, 人間中心의 經營管理를 통하여 生産性向上을 도모.

· 勤勞意慾의 감퇴와 생산직 종업원의求人難도 低年齡階層 勤勞者의 건전한 價値觀을 유도하는 企業文化의 형성과 생활의 질적향상을 실현하는 勤勞內容의 개선을 통하여 극복될 수 있음. 이러한 노력은 高價製品 중심의 差別化戰略을 전개할 수 있는 經營資源을 축적하고 需要變動에 신속히 대응하는 多品種小量生産의 효율적 分業體制를 구축하기 위한 低年齡層 優秀人力의 확보를 위해서도 불가피함.

· 作業環境이 劣惡한 工程의 自動化를 확대하고, 經濟性이 없어 自動化가 어렵거나

生産性向上에 한계가 있는 低生産性 工程에서는 해외생산의 활용·中年女性의 經濟活動增加 유도·家族經營의 소규모 下都給工場을 활용하는 外注의 확대로 대처할 수 있음.

－ 工作機械産業과 로봇産業등 자동화 기기산업은 自動車·電子産業 등 主要輸出産業의 生産自動化를 지원하는 핵심적 資本財産業인 바, 급증하는 내수를 기반으로 自動化機器産業의 技術蓄積을 가속시키는 組織的 研究開發의 추진과 이에 대한 政府支援이 필요함.

－ 輸出産業의 競爭力이 회복하려면 技術人力과 技能人力의 부족이 해소되어야 함.

· 製造業의 人力難을 해소하기 위한 「産業人力 需給對策(7.6)」은 技術 및 技能人力 공급확대를 위한 學校教育, 職業訓練 등의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어 장기적으로 人力難의 완화에 기여하겠지만 단기적 효과에는 한계가 있으며, 技術人力의 확보를 지원하는 中小企業施策도 미흡하다고 판단됨.

· 短期에 中小企業의 技術人力難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일상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技術開發支援·技術指導·技術研修·技術情報提供을 확충하고 支援機構를 중소기업이 밀집한 지역으로 확산

5) 市場開放의 能動的 推進

－ 우루과이라운드多者間國際貿易協商의 취지는 工產品輸出國, 農産物輸出國, 서비스輸出國 모두를 위한 개방적 貿易秩序를 확립하여 保護貿易主義를 타파하고 通商摩擦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자는 것이며 同協商이 원만히 타결되는 경우 모든 참여국은 輸出을 확대하고 나아가서 經濟活力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됨.

· 우루과이라운드協商의 성공적인 타결은 미국 등 主要交易相對國과의 通商摩擦을 크게 완화시켜 주고 우리의 企業과 商品의 對外進出을 촉진하여 줄 것임.

－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協商의 결과 우리는 또한 農業, 서비스 등 우리의 國際競爭力 脆弱部門을 개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들 부문의 對外開放은 産業構造調整의 과도기적 진통을 가져올 것이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産業構造調整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 우루과이라운드協商이 失敗로 끝나는 경우에는 미국 등 主要先進國들이 互惠主義에 입각하여 강력한 雙務的 市場開放壓力를 가중시켜 올것으로 豫想되어 역시 이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준비되어야 할 것임.

· 능동적인 市場開放은 해당부문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임.

－ 能動的 市場開放을 위한 主要政策課題는 다음과 같이 정리됨.

· 農業支援의 전반적 개편과 農村의 構造調整促進

· 서비스부문 및 商業一般에 걸친 각종 규제의 整備·緩和

〈農村支援施策의 再編〉

－ 農産物에 관한 우루과이라운드協商이 원만히 타결되는 경우 주요 合意內容은 첫째, 農村支援施策中 農産物交易 및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수출보조 및 국내보조를 합의된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감축시켜 나가고 둘째, 모든 농산물의 國內價格과 國際價格의 차이를 關稅化하고 이에 따라 설정되는 관세의 폭을 일정기간에 단계적으로 인하시켜 나가자는 것이 될 것임.

· 數量的 輸入制限은 극히 예외적인 一部品目에 한정되고 일반적으로 모든 품목들은 關稅에 의해서만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

· 또한 二重穀價制實施와 각종 저리영농자금 지원, 농기계 가격보조, 가격안정제도, 차액보상제도 등이 減廢對象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더라도 保護

支援의 철폐가 당장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5~10년의 합의된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실시될 것인바 우리는 이러한 기간에 우리의 農業政策을 作目體系의 再調整 및 農業의 下部構造改善을 통한 生産性增大와 農村構造調整을 촉진하여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한 農村의 逆境을 農業 및 農村의 발전의 계기로 活用하여야 할 것임.

· 農村支援施策을 새로운 國際交易規範에 맞추어 개편하고 특히 禁止對象이 되고 있는 生産補助金を 폐지시켜 나감과 동시에 農村支援方式을 전환하여 농업의 下部構造改善支援을 확대하고 또한 農家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福祉政策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함.

· 농촌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農土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토록하고 이를 위하여 農地關聯法의 改編方案을 강구함.

〈政府規制의 완화와 企業環境의 改善〉

－ 對外開放에 대비하여 金融産業의 國際競爭力 提高가 시급히 요청되는 바 이를 위하여 그간 공공성을 강조하여 유지해온 각종규제를 철폐하고 國內金融産業間의 경쟁을 촉진하여야 할 것임.

－ 內國民待遇의 원칙을 수용하여 內外金融機關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를 완화해 나가고 특히 金利規制를 완화해 나가도록 함.

· 비대칭적 규제에 의해 競爭力이 억압되어온 市中銀行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함에 따라 金融서비스開放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촉진됨.

－ 91년도로 예정되어 있는 證券産業開放은 가능한 한 범위를 넓게 하되 그 深度를 낮춤으로써 金融서비스開放의 세계적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金融國際化에 대비하여 國內證券社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金融뿐 아니라 情報·通信·레저, 流

通, 廣告 등 일반서비스部門의 경우에도 각종 규제로 인하여 國內企業들은 競爭의 經驗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그 결과 國際競爭力이 극히 취약한 상태로서 이들의 競爭力 培養을 위해서는 우선 규제완화 및 기타 제도적 개선을 통한 對內的開放을 서둘러야 할 것임.

— 또한 우리나라 서비스企業들의 海外進出을 촉진할 수 있도록 통제위주의 관련제도 및 규제(例: 外換管理法, 海外建設業法 등)도 정비하여야 하고 나아가서 外國企業에 의한 不公正行爲 등에 대한 대응책도 강구하여야 할 것임.

6) 社會的一體感의 造成

— 급변하는 對外與件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轉禍爲福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政府, 企業, 國民 各계各층의 신뢰와 협력에 바탕을 둔 社會的 紐帶感 및 一體感의 造成

이 중요한 과제임.

· 北韓의 변화를 유도하여 민족적 棼원인 南北統一을 앞당기며, 그에 따른 經濟的 부담에 對備하여야 한다는 國民的 合意를 유도함으로써, 무리한 요구의 자제를 통한 經濟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

· 對外指向的 成長을 추구하는 우리경제로서 經濟開放은 불가피한 命題인 바, 開放 壓力에의 저항보다 構造調整을 통해 競爭力을 제고하기 위한 政府와 民間의 共同努力이 절실함.

· 高油價로 인한 世界景氣의 鈍化와 技術保護主義의 강화에 대비하여 종래와 같이 換率· 賃金의 조정 등 安易한 대응을 탈피하여 企業의 技術開發, 經營革新, 勞使協力強化 등 구조적인 自救努力 유도

· 社會指導層과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계층의 率先垂範 필요 *